

- 주요 뉴스: 연준 의장,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.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
 - 연준 보우만 이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
 - 독일 경제장관,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은 유럽 에너지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
 - 유로존 6월 S&P 글로벌 종합 PMI, 16개월래 최저. 인플레이션 위험 등이 영향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지속. 국채 금리 하락으로 주식 매수세는 강화
 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하락[-7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기술 관련주 및 경기 방어주 등이 상승을 주도
 유로 Stoxx600지수는 고물가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0.8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
 유로화가치는 0.4% 하락, 엔화는 1.0% 절상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역내 6월 기업활동 둔화 등으로 2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9.6원, -2.2원) 0.1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6/23일	6/22일	전일대비			6/23일	6/2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795.7	3,759.9	0.9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09%	3.16%	-7bp
	유럽	402.40	405.74	-0.82%		독일	1.43%	1.64%	-21bp
	중국	3,320.1	3,267.2	1.62%	CDS 5y	한국	50bp	48bp	2bp
	일본	26,171	26,150	0.08%		중국	82bp	81bp	1bp
	한국	2,314.3	2,342.8	-1.22%	위험 지표	EMBI+	-	436	-
환율	달러지수	104.40	104.20	0.20%		VIX	29.05	28.95	0.35%
	유로화	1.0523	1.0566	-0.41%		WTI유	104.27	106.19	-1.81%
	엔화	134.95	136.26	0.97%	원자재	구리	373.9	394.4	-5.20%
	위안화	6.6990	6.7023	0.05%		금	1,822.8	1,837.7	-0.81%
	원화	1,301.8	1,297.3	-0.3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의장,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.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

-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묻는 질문에 ‘무조건적(unconditional)’이라고 대답하여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시사. 또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는 완전고용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
- 한편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, 경제가 금년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. 다만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, 금리인하는 물가안정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발언
- 일부에서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전보다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.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로 향후 통화긴축 강화 전망 및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-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. 6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2천건 감소한 22.9만건을 기록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전에 비해 노동시장 내 공급 부족 현상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
- 6월 S&P 글로벌 종합 PMI 역시 51.2로 5개월래 최저. 특히 제조업 PMI(52.4)는 약 2년래 가장 낮은 수준. S&P Global의 Chris Williamson은 기업 신뢰가 경기하강을 나타내는 수준에 근접하는 등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보우만 이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

-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뒷받침된다면, 7월 0.75%p 인상 및 그 이후 수 차례 연속의 0.5%p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. 인플레이션은 고용을 저해하므로 실질 연방기금금리를 플러스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

■ 미국의 은행 건전성 평가, 대형 은행들은 심각한 경기침체도 극복 가능

- 연준은 이번 평가에서 대형 은행들이 강력한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견조한 자본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, 동시에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단. 한편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향후 배당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. 3/4분기 자사주 매입은 2/4분기에 비해 줄어들 전망

■ 독일 중앙은행 총재,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뒤흔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

- 나겔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관련 대응을 과도하게 늦거나 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. 만일 인플레이션 억제에 늦다면 좀 더 강력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는데, 이러한 방식은 결국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첨언

■ 독일 경제장관,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은 유럽 에너지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

- 하벡 경제장관은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손실이 증가하고 있고, 이러한 영향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발언. 기업의 손실이 더 이상 용인되지 못하면 에너지 시장은 특정 시점에 결국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

■ 러시아, 달러화 표시 유로채권의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

-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2개 채권의 이자 125.1억루블을 국가예탁결제원(NSD)에 지불.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채권자가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가능. 최근 푸틴 대통령은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상환 시 루블화 지급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

■ 유로존 6월 S&P 글로벌 종합 PMI, 16개월래 최저. 인플레이션 위험 등이 영향

- 해당 PMI는 51.9를 기록하여 전월(54.8) 및 예상치(54.0) 하회.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역시(각각 52, 52.8) 전월(각각 54.8, 55) 대비 하락. 기업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수요 악화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
- Commerzbank의 Christoph Weil은 이번 결과로 ECB가 보다 신중하게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. Morgan Stanley의 Jens Eisenschmidt는 유로존의 성장 정체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주석, 코로나 팬데믹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성장을 목표를 유지

-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성장을 목표 달성을 약속. 아울러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및 경제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24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데 퀴도스 부총재 강연,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가계의 저축 증가, 경기둔화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 - WSJ

(America's Cash Hoard Could Cushion a Downturn)

- 최근 금리인상으로 소매업체 실적 악화 등 경기침체의 전조 증상이 발생. 하지만 1/4분기 가계 보유 현금 17.9조달러로 '20년 1/4분기(13.7조달러) 대비 급증한 점에 주목할 필요. 특히 저축이 소득, 연령 등과 무관하게 모든 가계에서 증가
- 연초 이후 코로나 팬데믹 우려 완화로 저축률이 하락하지만 Barclay는 적어도 '23년 말까지 보유 현금이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. 높은 수준의 가계저축을 고려한다면, 통상 경기침체에 발생하는 급격한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

■ 일본은행, 엔화 약세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포기할 가능성 - WSJ

(Japan Faces Its Moment of Truth on Inflation)

- 일본은행은 전세계적인 통화긴축 상황에서 초저금리 유지를 선택. 특히 대규모 국채매입을 통해 수익률곡선 제어(YCC) 정책을 고수. 하지만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
- 특히 4월 물가상승률이 2.5%까지 상승.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지만 일본 자체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편. 이와 같은 큰 폭의 엔화 약세 및 수입물가 급등에 의한 가계비용 증가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초래할 소지
- 한편 일본은행이 YCC 정책을 포기한다면 금융시장은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. 특히 이를 대비한 시장참여자들의 선제적 움직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의 공급과잉 및 소비감소 가능성, 잠재적 경기침체 요인 - Financial Times

(Supply won't save us)

■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대책,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전망 - WSJ

(Europe Prepares to Go Cold Turkey on Russian Ga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